

# 미완의 혁명 그리고 위태로운 삶: 이란 녹색운동과 튀니지 재스민혁명 그 후 10년\*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아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약 10년 전 이란과 튀니지에서는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이 발발했다. 2009년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이란 녹색운동이, 2010년에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실업난으로 촉발된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발발했다. 두 시민저항운동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선동이 없이 실업난과 사회 부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대규모 분노 표출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높아진 양국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경제발전 기대는 부의 양극화 심화와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패, 권위주의 정부의 지속적 탄압으로 무너졌다. 변화에 대한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부터 점증된 상대적 박탈감은 대규모 시민불복종 운동을 이끌었다. 본 연구는 2009년 이란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 시장경제가 중동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으며 향후 어떤 사회적 변혁을 이루어 낼지 예상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이란, 튀니지, 녹색운동, 재스민혁명, 아랍의 봄, 신자유주의

## I. 들어가며

2019년 10월에서 11월, 이라크를 시작으로 레바논 그리고 이란에서 심각한 경제난과 더딘 사회적 개혁에 분노한 민중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의 함성은 혼란스러웠던 지난 10년을 회상하게 하며 중동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동의 민주화 시위와 혁명은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와 마주하고 있는가? 20세기 초중반, 중동에 근대 민족 국가가 설립된 이후 권위주의 정권 아래 침묵해 왔던 이란과 아랍의 시민들은 21세기 초 동

\* 본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SNUAC-2019-004). 또한 본 저작물에는 웹진 『다양성+아시아(DiverseAsia)』(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9년 12월)에 기고한 “이란과 튀니지의 봄 이후 10년, 현재진행형인 시민저항운동”의 일부 내용이 포함됨을 밝힌다.

시다발적으로 반정부 시민저항운동을 이끌었다. 그중 대표적인 시민저항운동이 2009년 이란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이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발발한 이란과 튀니지의 대규모 반정부 시민저항운동은 곧 주변국으로 퍼졌다.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바레인에서 부패한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발발했다. 시민들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무바라크(Mubarak) 이집트 대통령, 카다피(Gaddafi) 리비아 원수, 살레(Saleh) 예멘 대통령을 포함한 독재자 축출에 성공했다. 특히 이 민주화 운동은 지금까지 수동적인 존재로 대상화되었던 이란과 아랍의 젊은이들을 능동적 주체로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는 이란과 아랍 지역의 젊은이들이 민주화 봉기를 통해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위협을 감수했던 것을 목도했다(Jahanbegloo, 2011: 126-127).

2009년 녹색운동 11년과 2010년 촉발된 튀니지의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중동의 민주화와 평화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경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란과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의 시민저항운동은 이후 이집트, 예멘, 시리아, 바레인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후 IS의 등장은 다시 한 번 중동에 큰 상흔을 남기게 된다. 이후 내전으로 참혹한 상황에 빠져든 시리아와 예멘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이 복귀한 이집트로 시민저항운동은 주춤한 듯 보였다. 중동의 봄 이후 10년, 2019년 부패한 정부와 불평등, 실업난에 항거하며 알제리, 수단, 레바논, 이라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저항운동은 묘한 기시감에 빠져들게 한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의 성공으로 이란이슬람공화국이 건국된 지 30년 만인 2009년, 이란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다시 ‘혁명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란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그들이 분노한 것은 단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철저히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 앞에 주어진 것은 전 방위적인 탄압과 심지어 죽음이었다. 수많은 젊은이의 죽음은 이란 녹색운동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란에서 변화와 저항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비록 2009년 녹색운동은 미완의 실패로 끝났지만, 시민사회로의 발전과 민주

주의의 열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결코 실패라 할 수 없다. 이란 녹색운동은 이슬람혁명 30년에 대한 평가가 팽팽하게 대립된 이란의 정치현실을 보여 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1주년을 맞은 2020년까지 녹색운동은 이란 내 시민사회운동과 평화와 민주화를 이끈 역사적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청년의 생활고로 인한 분신으로 시작된 튀니지 재스민혁명은 아랍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의 발발은 아랍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부정부패, 경제난, 전체 인구의 60~70%를 상회하는 청년층의 고실업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을 시작으로 2011년 수많은 아랍 국가가 ‘아랍의 봄’을 경험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아랍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던 민주정권이 군부 쿠데타로 전복된 이집트, 독재정권이 복귀한 시리아, 내전으로 실패국가가 된 리비아와 예멘을 통해 ‘아랍의 시련’을 맞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아랍의 봄의 방아쇠를 당겼던 튀니지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손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 아랍의 시련 속에서 튀니지만이 더디지만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엄한진, 2012).

이란 녹색운동과 튀니지 재스민혁명은 시민저항운동의 발발양상에서도 공통점을 보였다. 아세프 바야트(Asef Bayat)는 『혁명가 없는 혁명(Revolution without Revolutionaries)』에서 2009년 이란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요인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목했다(Bayat, 2017: 17). 바야트는 2009년 이란과 2010년에 아랍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이 어떤 사상이나 이론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생했다고 보았다. 2009년 녹색운동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시작으로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발발했고, 뒤이어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을 중심으로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린 시민저항운동이 절정을 이뤘다. 그렇다면 이란과 튀니지, 페르시아와 아랍의 지역에서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본 연구는 2009년 이란 녹색운동의 의미와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국가의 민주화 민중 시위에 대한 비교연구는 각각 시아 이슬람권과 수니 이슬람권에서 처음 시작된 민중봉기이자 ‘아랍의 봄’이라는 범지역권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란과 튀니지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두 나라의 민주봉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혁명이 없는 혁명’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높은 실업률, 양극화가 고착되는 과정들, 그리고 혁명 이후에도 여전한 경제 불평등 현상을 이란과 튀니지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sup>1</sup> 또한 중동에서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당겼던 이란의 녹색운동 11주년과 튀니지 재스민 혁명 10주년을 맞아 두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혁명 이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정책도입과 시장경제가 중동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으며 향후 어떤 사회적 변혁을 이루어 낼지 예상하는 출발점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II.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의 혁명의 의미와 전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신자유주의란 사유재산권, 개인적 자유, 자유로운 시장 및 자유 무역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인간의 행복한 삶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이론”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Harvey, 2007: 22). 신자유주의적인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탈규제와 개방과 같은 시장 중심적 논리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까지도 제한했다(Rodrik, 1997: 6). 1960년대 신생독립국인 이집트, 알제리를 포함한 중동국가들은 국가주도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도입했다(Joya, 2017: 343). 각 정부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자리, 의료, 교육, 생활품 보조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들 국가는 결국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를 요청, 구제의 조건으로 국가

<sup>1</sup> 이 논문은 두 연구자의 공동저작이다. 구기연은 이란 부분을 맡았고, 유아름은 튀니지 부분을 맡아 저술하였다. 그 외 서론과 이론적인 부분은 세미나를 통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튀니지 연구의 경우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이란 연구의 경우 2차 자료와 더불어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인 참여관찰 및 인터뷰 면담 자료가 추가되었음을 밝힌다.

주도 경제모델을 버리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조조정프로그램(SAP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을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정부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공기업을 사기업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으로 형성됐던 공공영역의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Hatem, 2012: 405). 또한 이들 정부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들여온 사업권을 소수 엘리트에게만 몰아주면서 부의 배분이 차단됐다. 중산층이었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양극화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됐다. 이집트의 경우 빈곤율이 상승해 최저생계선 밑에 사는 국민이 2000년에 16.7%에서 2008년에는 22%까지 상승했다(Yahya, 2019: 51). 이란이슬람공화국에서도 1988년 이후 지리했던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이 나고 라프산자니 대통령 등장 이후 ‘지하드 재건’이라는 기치 아래 신자유주의 흐름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기업화된 개인, 권리 서비스 부분의 사유화, 장기 실업 등이 이란사회에 그대로 불어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란인들에게 빈곤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되었고, 높은 청년 실업률에 의한 ‘좁비 같은 삶’을 사는 젊은이들은 가족들의 부담이 되었다(Khosravi, 2017: 9). 테헤란보다 지방과 노동자 계급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짙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면, 노동자 계급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Khosravi, 2017: 217-218).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는 민주주의 확대도 포함됐다. 형식적이거나 중등에서도 야당의 활동이 허가됐고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 도입’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이집트, 튀니지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는 ‘극단이슬람 테러주의자’를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군대와 경찰을 포함한 국가 공권력을 강화했다. 국민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국가폭력기제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다(Hatem, 2012: 406-407). 벤 알리(Ben Ali) 정부의 감시 아래 튀니지 시민사회 발전의 기반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에도 계속 국가의 감시를 받아 실효성이 미비했다. 시장개방과 민주주의 제도 도입으로 한층 올라간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던 2008년 월가 점령운동 이후 대

중 저항운동에 변화가 보였다. 기존의 혁명은 카리스마를 가진 소수의 혁명가가 이끈,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대중적 저항운동이었다. 즉, 지금까지의 혁명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저항운동을 통해 기존 체제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대안을 제시한 혁명 1.0이라면, 2008년 이후 혁명은 기존 제도와 엘리트 체제를 비판하는 ‘우발적’이고 ‘자발적’인 혁명 2.0이라고 볼 수 있다. 혁명은 사회 구조적 개혁이나 변동의 과정을 이끌어 내는 대중사회운동(Skocpol, 1979: 4)이며, 기존 체제와 다른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다른 집합 행위(collective behaviour)와 구분된다. 마르크스가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계급갈등으로 촉발된 혁명적 변동으로 사회가 발전된다고 봤다면, 톨리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권력투쟁으로 혁명이 발발한다고 주장한다(Tilly, 1980). 다시 말해 혁명은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집단행위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가졌다는 이성적 판단 아래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테드 거(Ted Gurr)는 사회의 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혁명 발생의 필요조건으로 본다(Gurr, 1970). 절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이 혁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활 조건이 향상되고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높아진 기대감에 비해 현실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 저항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다. 즉, 저항은 평등과 민주적 정치참여라는 이상이 확산되면서 더욱 강화된다(Briton, 1965). 바로 이 점에서 중동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혁명들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시민사회 저항운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박인권과 이선영(2012)의 글에서도 이란과 튀니지 사회에서 혁명의 불씨가 된 신자유주의 확산과 시민 저항운동과의 연결고리의 맥락들을 참고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대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상반된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국가는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확대의 상반된 힘은 매번 균형을 이루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모순적 현상을 만들어 낸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성장한 개인의 행복 및 권리에 대한 의식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요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한다(박인권·이선영, 2012: 15-16).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 역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았을 때, 경제적 불평등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신음해 왔던 튀니지와 이란 사회에서 이와 같은 민주화 봉기가 일어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 녹색운동과 아랍의 봄은 한국의 사회과학, 지역학에서도 연구와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구기연, 2012; 김강석, 2016; 박찬기, 2014; 엄한진, 2011, 2012; 유달승, 2012).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아랍의 봄과 이란의 녹색운동은 주로 중동 내부 정체성 갈등이나 외부 개입의 정치(김강석, 2016), 아랍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실천의 역사(엄한진, 2011), 이란의 정치지형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유달승, 2012) 그려져 왔다. 반면, 박찬기(2014)와 엄한진(2012)은 튀니지와 이집트 아랍의 봄 비교연구를 통해 경제개발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에 기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SNS의 확산을 아랍의 봄 발발 요인으로 봤다. 구기연(2012)은 녹색운동 전개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실업률을 민중봉기가 일어난 사회적 배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란과 아랍 전역의 봉기 운동을 분석한 글들에는 경제개발을 통한 소수 엘리트의 부의 독식 문제만 언급했을 뿐, 불평등 증대의 원인인 경제정책, 그 결과로 발생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이란과 아랍 사회에 축적된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 실업, 박탈감 문제를 중심으로 이란의 녹색운동과 튀니지 재스민혁명을 분석하고, 혁명 이후 10년의 과정이 경제적인 이슈와 맞물려 어떻게 굴절되고 또한 다른 정치적 상황을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III. 네다와 부아지지, 두 청년의 죽음: 이란과 튀니지 민중봉기의 사회적 배경

#### 1. 2009년 이란 녹색운동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sup>2</sup>

이 절에서는 2009년 이란 녹색운동의 전반적인 배경이 된 이란의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또한 이를 저항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시민사회운동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에 시작해 1988년에 끝난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부터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건국 초기 평등주의에서 경제적 자유화의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989년 허세미 라프산자니(Hashemi Rafsanjani) 대통령 취임 이후로 첫 경제적 자율화 어젠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1997년 하타미(Khatami) 대통령은 자율적, 민주적 개혁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Saffari, 2019). 하타미 정권은 이슬람공화국 내 정치 권력 투쟁의 본격적인 진화 단계로 여겨졌다.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주체들인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의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Jahanbegloo, 2011: 131).

하타미 정권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란을 변화시켰고, 이란의 민주화에 대한 논쟁과 민주주의 담론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자한기르(Jahangir, 2006)가 지적했듯이 하타미 정권이 이전 정권처럼 다시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하고 영속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타미 정권 이후 이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냉소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평을 받는다(Jahanbegloo, 2011: 131-132).<sup>3</sup> 하타미 정권은 보수 강경파들의 견제로 인

<sup>2</sup> 이란 녹색운동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을 통한 연구는 구기연(2012). “현대 이란 사회에서의 자아와 녹색운동의 문화적 의미”를 참고할 것.

<sup>3</sup> 하타미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2년에 저자는 현지조사를 위해 6개월 동안 이란에 머문 적이 있다. 당시 하타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란 내에서도 엇갈렸는데, 중상류층 계급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며 세속적인 성향의 도시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하타미의 개혁, 개방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중하층 계급의 이란 사람들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하타미 대통령의 국제 사회와의 대화의 시도로 이란이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를 나누



해 정치적 개혁 어젠다를 강력하게 실현시키지 못해 최대 지지자들이었던 중산층으로부터 외면당했다. 2000년대 이란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거센 물결과 맞닥들였고, 날로 악화되는 자신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대항하는 교사들과 공장 근로자 등과 같은 노동자 단체들의 일련의 저항이 시작되었다(Saffari, 2018).

2005년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냉소주의와 경제적인 불만족의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신원리주의자로 분류되는<sup>4</sup> 마무드 아마디네자드(Mahmood Ahmadinejad)가 예측 불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의외의 선택의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는 신원리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경제정책이다. 신원리주의자 대선 후보인 아마디네자드는 강력한 이슬람사회를 위한 평등주의를 강조했고 빈곤 타파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거구호로 내세우면서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과 지방에 생필품을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유달승, 2018a). 아마디네자드는 ‘식웃값을 민중들의 저녁 식탁에’라는 공약을 내세웠으며(Salehi-Isfahani, 2009: 5-6), 아마디네자드 정부는 국가의 보조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한다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고질적인 경제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유달승 2018a). 아마디네자드 정부는 전통적으로 종교적이고 이슬람정권의 최대 지지자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의 경제정책

게 되었지만, 중하층 계급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이란 내 발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sup>4</sup> 유달승(2018a)은 이란 정치 지형도를 설명하면서 현재 이란의 정치엘리트는 크게 네 개의 정치단체, 즉 전통 우파, 좌파, 현대 우파 및 신원리주의자로 나누어진다고 분석한다. 유달승은 신원리주의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통 우파와 좌파는 이슬람혁명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슬람혁명과 이후 건설에서 이슬람 우파와 이슬람 좌파가 혁명이념과 경제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이슬람공화당이 해체하게 되었다. 현대 우파와 신원리주의자는 이슬람혁명 이후 전통 우파에서 탈퇴해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면서 등장했다.” 또한 유달승은 이 글에서 “신원리주의자는 대외정책에서 뿌리 깊은 반미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어떤 정치단체보다도 강력한 반서방 정책을 표방한다. 신원리주의자의 지지기반은 급진적인 성격자, 이슬람혁명수비대, 민병대, 안사레 헤즈볼라이다.”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글에서도 아마디네자드를 신원리주의자로 분류한다.

역시도 이란인들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sup>5</sup> 아마디네자드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이미 전 지구적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에 눈떠 변혁을 원하는 개혁적인 중상류층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의 1차 재임기간 동안 독립적인 시민단체들이 문을 닫았으며, 활동가들, 지식인, 언론인들, 여성운동가들은 투옥되었으며 정부에 반하는 대학교수와 학생들은 제거되었다(Bayat, 2017: 77). 아마디네자드는 ‘반제국주의 운동(Bayat, 2017: 4)’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였다. 이에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고 세속적이며 종교주의자들을 경계했던 사람들의 민심을 자극시켰다.

2009년은 이슬람혁명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sup>6</sup>은 재임을 목표로 2009년 6월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당시 개혁파, 도시 중산층은 개혁파 후보인 무사비 후보를 지지하며 그의 상징색인 ‘녹색’을 선거 운동에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거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통제된 이란 사회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들은 4년 전 자신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를 뼈아프게 생각하며, 서로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파 후보인 미르 후세인 무사비(Mir Hussein Musavi)의 선거 캠페인 상징색이 녹색이었고, 시민 지지자들은 자발적으로 녹색의 옷, 녹색의 끈으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지지자들의 녹색 의복과 손목의 끈은 어떤 선전도구보다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느슨한 연대를 통해 무사비를 지지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구기연, 2012: 84; Fischer, 2010).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 초록색 끈은 ‘이 마법의 녹색 팔찌(This Magic Green Bracelet)’라 불렸다(Alavi, 2010: 209-215). 선거 직전 테헤란을 비롯한 대도시는 마치 축제 같았다. 젊은이들은 사진과 포스터를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테헤란 북부의 타즈

<sup>5</sup>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이슈는 이후 ‘아랍의 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동 지역 특히 지대국가에서의 보조금 지원의 부정적인 결과와 아랍의 봄과의 연관성은 분석해야 할 부분이다.

<sup>6</sup>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최고지도자 다음으로의 지위에 있으며, 국민의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 재선 신화라 불릴 정도로, 역대 대통령들은 재선에 모두 성공한 바 있다.

리쉬 광장부터 남부 지역까지 20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발리아스르 대로에서 수 천 명의 지지자가 인간 띠를 만들었고, 선거 전 주말 도심 곳곳은 지지자들의 기 대로 절정에 다다랐다(구기연, 2017: 187-188).

하지만 이란의 변화를 꿈꾸며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아마네자드 대통령 재선 성공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하게 되었다. 아마디네자드는 득표율 62.46%을 기록하면서, 33.87%를 기록한 무사비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BBC 뉴스 09/06/13). 진보 개혁 성향으로 무사비 후보나 카루비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날 오후부터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해 쉬라즈, 이스파한, 타브리즈, 마샤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선거 무효와 부정선거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선거 전 축제 분위기였던 발리 아스르 거리는 다시 성난 군중으로 가득 찼고, 거리의 쓰레기통들은 불더미에 휩싸였으며, 길가의 상가들과 버스 정류장 유리들은 파손되었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마르그 바르 디테토르(독재자에게 죽음을)’란 구호가 선거 다음날부터 온 도시의 밤을 뒤덮었다. 또한 사람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프로필은 “Where is my vote?”로 바뀌었다. 참여 관찰 내내 만난 많은 이는 자신은 분명 ‘무사비’로 적었는데, 나의 표가 ‘아마디네자드’ 표로 둔갑되어 나왔다고 흥분했다. 거리 군중들의 분노는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 아니다. 이 치열한 논쟁의 뿌리는 바로 이슬람공화국의 역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함성은 이슬람공화국의 정의와 방향성에 대한 질문으로 핵심이 옮겨졌다. 이는 곧 이슬람공화국이 ‘권위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Ansari, 2010: 56).

이에 시민 불복종 형태의 녹색운동(Jonbeshe-Sabz)이 시작된 것이다. 마흐다비(Mahdavi, 2013)는 녹색운동을 시민 불복종 투쟁이라 규정하며, 특히 이란 젊은 이들이 자신의 몸과 아비투스(계급적 문화 취향),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 이슬람 정권이 구성한 도덕성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전 자신의 녹색 티셔츠와 히잡으로 녹색의 거리와 광장을 만들었던 이란력 1360년대생<sup>7</sup>들은 선거 결과 이후 또다시 민중봉기를 주도하는 주인공

<sup>7</sup> 이슬람력으로 올해(2020년)는 1399년이다. 즉, 1360년대생은 서기력 1980년대생 이후 출생한

이 되었다. 비폭력 시위에 동참하던 26세 여성 네다 아가 솔탄(Neda Agha-Soltan)이 사복 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어 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도하면서 녹색운동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동시에, 한 젊은 여성의 죽음은 이란 민중들의 용기와 주체성을 보여 주는 전형이 되었다(Alavi, 2010: 256, Tahmasebi-Birgani, 2010: 78). 시위가 시작된 2009년 6월 10일 이후 첫 6주 동안 테헤란에서만 2,500명이 체포되었고, 150명 넘게 투옥되었으며, 공식적인 사망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Jeffery 2009). 젊은 인구의 높은 비율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거센 여파와 함께 온 대량 청년 실업 사태가 정치적인 원인에 가려진 가장 직접적인 이란 녹색운동의 원인이라고 할 때, 평화시위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죽음과 실종은 이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이슬람정부는 대선 이후 남녀노소가 참가한 대규모 침묵시위 등 평화로운 국민들의 목소리 역시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무력 진압과 구속으로 녹색운동은 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달승(2012: 12-15)은 이러한 배경으로 녹색운동의 내부적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개혁진영의 지도자인 무사비는 대규모 시위나 파업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슬람공화국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반정부 집회가 진행되기를 바랐다. 또한 1979년 이슬람혁명을 가능케 했던 노동자 계급과 상인들이 결집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녹색운동은 급속히 힘을 잃게 되었다. 이후 녹색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 후세인 무사비와 메디 카루비(Mehdi Kyarubi)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가택연금에 처하게 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기존의 후보자 부인과 전혀 다른 행보를 펼쳐 여성층과 젊은 층들의 눈길을 끌었던, 또 하나의 변혁의 상징이었던 미르 후세인 무사비의 부인인 자흐레 역시 가택 연금되어 있다.

사실상 이란은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라는 강력한 군사조직의 권력으로 이집트, 튀니지 등의 지역보다 시민운동이 반체제 운동을 추진하기에 더욱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한베글루는 이란 정권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 알리 정권이나 무바라크 정권보다 더

세대들을 뜻한다. 이란에서는 한국에서 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호명하듯, 60년대생(서기력 80년대생), 70년대생(서기력 90년대생)으로 표현한다.

욱 체계적이고 무자비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Jahanbegloo, 2011: 128).<sup>8</sup> 그럼에도 마디네자드가 펼친 강압적인 이슬람 강화 정책과 핵 문제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란의 현실로 인해, 특히 중상류층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불만을 샀고 이들은 이란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다.

녹색운동은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슬람 공화국의 방향과 미래 자체의 위기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녹색운동에 대한 지지자를 세속적이고, 중산층 이상, 지식인층, 특히 젊은이들로 국한시켜, 마치 계급 간의 분열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녹색운동은 다양한 결을 지니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의미망을 지닌 역사적 사건이다(Dabashi, 2010; Ehsani et al., 2010). 지젝(Žižek)은 이란의 시위를 단순히 이슬람 강경파 대 친서구적 자유주의 개혁파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녹색운동에서 보이는 이란 시민들이 외침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의 반복으로’, ‘수천 명이 완벽한 침묵 속에 벌인 심상치 않은 행진처럼, 국민의 단결에 대한 확실한 입증, 모두를 아우르는 연대, 창의적인 자기 조직화의 즉흥적 행위, 자발성과 규율의 독특한 조합 등, 이것은 이슬람혁명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벌인 진정한 대중 쫓기’임을 강조하였다(지젝, 2012: 114).

이란의 녹색운동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 시민사회운동의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운동은 비록 혁명으로 발전되지는 못했지만 이슬람혁명 30주년 최대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역사적 사실은 특히 개혁주의 민중들에게 이슬람공화국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더욱 각인시켰다. 지젝의 말을 빌리자면, 이슬람혁명 초기 당시에 이란 사회에서 보였던 ‘정치, 사회적 창조성의 놀라운 폭발과 학생들과 시민들 사이의 논쟁’들은 이슬람 정권 30년 동안 서서히 사라져 갔고, 녹색운동은 이슬람혁명에서의 ‘억압된 것으로의 회귀’인 것이다(지젝, 2012: 110).

부정선거 규탄 시위운동은 이슬람공화국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최고지도

<sup>8</sup>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가 새로 창설한 정예군으로, 2019년 4월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04/19).

자는 현재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상징이자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지위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규탄 시위운동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입지를 이슬람체제의 헌법적이고 중재자적인 역할에서 절대적인 권위적인 지도자로 변화시켰다. 프랑스로 망명한 반정부 정치 활동가 레자 알리자니(Reza Alijani)의 진술처럼, 1) 이란 중산층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2) 투표를 대신하는 거리 시위, 그리고 3) 끝나지 않는 저항이 녹색운동이 남긴 세 가지 의미라 할 때, 이란 녹색운동은 지금도 이란 안에서 꺼지지 않는 변혁에 대한 열망의 동력이다(Shams, 2019). 하지만 샴스 서미(Shams, 2019)가 덧붙인 것처럼 트럼프 등장 이후 몇 년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 이슈로 저항과 봉기의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 2.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사회적 배경

이 절에서는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발발 과정과 발생 동인인 튀니지의 실업률과 부패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튀니지에서 발생한 시민저항운동은 2010년 혁명이 처음은 아니다. 실업률과 만연한 부패, 낮은 정치적 자유는 튀니지 시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낳았다. 1980년대 중반 시민들은 정부의 빵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며 거리에 나섰으나 정부의 무력진압으로 와해되었다(김효정, 2011: 25). 그러나 2010년 혁명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독재자 벤 알리 대통령을 퇴진시킨 성공한 혁명이었다. 특히 벤 알리 축출 후 헌법개정, 정기적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공고화 이행을 보여 주고 있어 튀니지혁명은 ‘아랍의 봄’ 중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튀니지의 국화인 재스민의 이름을 따 ‘재스민혁명’으로도 불리는 튀니지혁명은 튀니지 정치·경제·사회의 부패, 고실업률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2010년 11월 28일, 튀니지 시민운동가들이 만든 폭로사이트 ‘튀니리크스(tuniLeaks)’와 ‘위키리크스(WikiLeaks)’에서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 일가의 불법 재산 축적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상을 담은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2009년 7월, 로버트 고텍(Robert Godet) 튀니지 주재 미국대사는 2급 기밀 전문에서 “벤 알리 대통령 일가의 부패와 독재, 고실업률에 대한 튀니지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



다. 현 정권의 체재 보장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The Guardian* 10/12/07). 고택 대사는 벤 알리 일가를 ‘준 마피아(qusai mafia)’라고 부르며 “벤 알리는 시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고 오히려 경찰력을 강화해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튀니지 정부는 이 문서들의 유출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벤 알리 일가의 부패에 대한 자료는 튀니지 온라인 사이트에 빠르게 퍼진 후였다(*The New York Times* 11/01/15).

유출된 자료를 본 튀니지 국민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었으나 바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혁명으로의 임계점은 자료 유출 20일 뒤 발생했다.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소도시 시디 부 지드(Sidi Bu Zid)에서 노점상을 하던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가 분신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튀니지의 만연한 부패와 높은 실업률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던 부아지지는 과일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인 17일 부아지지는 단속 경찰관에게 생계 수단인 저울과 상품을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했다. 이에 분노한 부아지지는 경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시청 앞에서 분신했다. 정부는 언론의 취재를 막았으나 부아지지의 분신 소식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데일리모션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그동안 정치자유의 박탈,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높은 실업률에 신음하던 시민들은 부아지지 분신 소식에 분노하며 거리에 나와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 트위터에서는 ‘#SidiBouazid’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시민들의 시위 소식이 전국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에서 반독재 및 시위 지지 여론까지 형성됐다. SNS라는 저비용의 신속한 의사소통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집합 행동이 짧은 시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시작됐다(이향우, 2011: 154-156). 부아지지는 분신 18일 뒤인 2011년 1월 4일 사망했다.

시위대의 시작은 부아지지의 분신에 공감한 젊은 층이었다. 높은 실업률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던 젊은 층이 먼저 시위에 가담했다. 튀니지는 안정적인 다량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이 약하고 관광업과 EU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 GDP의 64% 이상과 노동력의 50% 이상이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다(CIA Fact Book, 2019). 1987년 무혈쿠데타로 취임한 벤 알리 대통령의 관광업 중심 육성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튀니지 경제가 세계 경제불황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일자리 수요가 낮은 튀니지 경제구조에 비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의 인구는 전 인구의 약 70%에 육박한다. 이후 시위대는 전 연령층으로 확산됐고 실업문제 해결뿐 아니라 부패척결, 언론자유화, 벤 알리 정권의 퇴진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24년 동안 이어진 벤 알리 대통령의 독재, 만연한 부패와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12월 29일 벤 알리 대통령은 TV에 출연하여 시민들에게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위는 더욱 격화되어 2011년 1월 8일 수도 튀니스까지 번졌고 가프사(Gafsa)와 카세린(Kasserine) 지역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28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카세린 학살 3일 뒤인 11일, 라시드 암마르(Rachid Ammar) 장군이 벤 알리 대통령의 시위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군이 등을 돌리자 위기를 느낀 벤 알리 대통령은 시위 강경진압의 책임을 물어 1월 12일 내무장관을 경질하고 야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벤 알리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시위는 더 격화됐다. 1월 13일 튀니지 최대 노동조합인 UGTT(Un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가 파업을 선언, 시위대에 합류하며 반정권 시위대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군부의 무력진압 거부와 시위대에 위협을 느낀 벤 알리 대통령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6개월 내 조기 총선을 약속했으나 결국 이틀 뒤인 15일, 23년의 독재를 뒤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이후 1월 23일 푸아드 메바자(Fouad Mebazza) 하원의장을 수장으로 한 여야 통합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무함마드 간누시(Muhammad Ghannouchi) 총리를 포함한 벤 알리 정권의 구세력이 과도정부의 요직을 차지하자 이에 분개한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됐다. 2월 20일, 새로운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협의회(Constitute Assembly) 구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다. 시민들의 시위 지속에 2월 27일, 간누시 총리가 사임했다. 같은 해 10월 23일, 1년을 기한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개헌협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를 통해 217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개헌협의회가 출범했고, 온건이슬람정당인 엔나흐다가 약진하여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엔나흐다당의 하마디 자발리(Hamadi Jabali)와 에타크톨당(Ettaktol)의 무스타파 벤 자파르(Mustafa Ben Jafar)가 국회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민주주의에 입각한 혁명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개헌 작업이 시작되었

고, 약 2년 동안 각 정당 사이 치열한 논의 끝에 2014년 1월 새로운 헌법이 통과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26일, 혁명 이후 첫 총선이 치러졌다.

1970년대까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가 사회혁명의 동인이었다면 튀니지 제스민혁명은 앞서 살펴본 이란 녹색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엮인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동인이었다.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패, 기본적 정치 권리의 박탈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자유, 일자리, 존엄성(Freedom, Jobs, Dignity)을 외치게 했다. 시민들의 분노 중심에 있는 불평등의 기원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성장모델을 경제정책으로 도입했던 튀니지 정부는 1970년, 수출주도 성장정책으로 선회한다.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ourgiba) 튀니지 대통령은 인피타흐(Infatih, 개방) 정책을 펴 튀니지를 섬유 수출국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빵, 기름, 설탕을 포함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국가보조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했다. 수출주도성장은 잠깐 효과를 보는 듯했으나 70년대 중후반 오일쇼크로 인한 유가의 가파른 상승, 중간재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많이 늘어났다(Kadoub, 2013: 535). 1980년대 중반 외환위기로 경제가 더욱 악화하자 결국 벤 알리 정부는 IMF에 구제를 요청했다. 1986년, IMF 권고에 따라 튀니지 정부는 국가채무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 국가보조금 삭감을 통한 긴축정책, 튀니지 디나르 평가 절하를 시행했다.

벤 알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소득불평등 증대, 사회유동성의 폐쇄,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낳았다(Bedoui and Gouia, 1995; Pfeifer 1999; Murphy, 1999; King, 2003). 벤 알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확충이 아닌 GDP 수치 증가였다. 페이페르는 IMF가 권고한 정책으로 튀니지의 가시적인 경제지표(물가 상승률 인하, 국가부채 감소)는 향상됐으나,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실업률과 양극화, 사회 불평등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Pfeifer, 1999: 33).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 많은 튀니지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예로 구조조정정책으로 인해 가프사 인산회사(GPC: the Gafsa Phosphate Company)가 1980년대 1만 5,000명에서 2006년 5,800명까지 인원 감축을 시행하자 1970년대 중반까지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던 가프산 동쪽 지역의 실업률이 급상승했다(Benin, 2016: 11). 또한 국가주도 경제모델을 통해 공공일자리로 실업률을 상쇄하던 정부가 공공영역 일자리 비율을 대

폭 감소시키면서 실업률이 대폭 상승했다(Yahya, 2019: 50).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40%로 증가했다. 카둡은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동인을 바로 벤 알리 정부의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산된 청년층의 고실업률이라고 지적했다(Kadoub, 2012: 535).

신자유주의 정책 폐해의 동인은 소수 엘리트의 부의 독점과 차단된 부의 배분이었다. 시장은 개방됐으나 부와 혜택의 기회는 소수 엘리트에게만 집중됐다. 부르기바 대통령, 벤 알리 대통령의 일가와 소수의 기업가에게만 새로운 사업권이 돌아갔고 부패는 더욱 만연해졌다. 튀니지 주요 대기업 220개를 소유했던 벤 알리 일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튀니지 경제 대기업 영역 이익의 21%를 독식했다. 또한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의 개입을 줄이면서 보건, 교육, 생필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줄였다(Yahya, 2019: 50). 과거 정부 보조금에 따른 무상교육으로 문맹률이 낮아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자들의 수가 증가했으나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경찰과 군을 포함한 감시기구통제도 강화됐다(Kadoub, 2013: 537). 고등교육 확대로 시민의식이 성숙했지만 여전히 부패한 정부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England, 2019). 높은 기대감에 비해 받쳐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박탈감은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동인이 됐다.

## IV. 혁명 발발 그 후 10년,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된 사회

### 1. 이란: 계속되는 ‘위태로운 삶’<sup>9</sup>

#### 1) 개혁에 대한 희망, 내부 정치의 분열

이란 녹색운동은 튀니지처럼 혁명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란의 녹색운동은 이후 2013년 대선에서 개혁파 후보 로하니에 대한 보랏빛 지지운동으로

<sup>9</sup> ‘위태로운 삶’이라는 제목은 Khosravi(2017)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계승되었다. 로하니 후보 진영의 상징색이었던 보라색은 이란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에 대한 저항과 자유와 평등을 의미한다. 2013년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은 8년 만에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 개혁파로의 정권교체라는 면에서 의미를 지녔다(유달승, 2018b: 136). 또한 당시 로하니의 승리는 강경파 보수주의자들의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점령의 종말과 파벌 간 힘의 균형에서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Hurst, 2016: 553). “이란의 녹색운동은 분명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예요.”라는 한 인포먼트의 진술<sup>10</sup>처럼 개혁파 대통령인 로하니의 연이은 당선은 녹색운동 이후의 개혁과 변혁을 갈망하는 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란 녹색운동은 이란 내 내부 정치 투쟁과 정치적 파벌주의의 결과물로 보이지만,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도입 이후의 치열한 경제적 위기가 이란인들에게 더욱 직면한 현실이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Jahanbegloo, 2011; Saffari, 2018, 2019).

이와 같은 녹색운동의 의미를 계승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015년에 핵 합의의 끌어냈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타결에는 정치적 수와 자신의 리더십의 합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의 지지 역시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Hurst, 2016: 554). 로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의 성공과 핵 협의의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를 얻어 2017년 5월 강성주의 성직자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를 꺾고, 과반수를 넘기며 무난히 재선에서 승리했다(NPR 19/07/20). 하지만 뒤이은 예상치 못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연은 2년간의 달콤한 꿈에서 악몽으로 변하는 요인이 되었다.

핵 문제 합의뿐 아니라 이란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던 로하니 대통령의 사회적 개혁, 즉 사회적, 정치적 자유와 인권 문제 역시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 지수를 합산한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자유지수(World Freedom Index)(Freedom House, 2019)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기간과 로하니 대통령 재임기간 모두 지수 6을 기록하며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뽑혔다. 또한 2018년 여성들의 강제 히잡에 대한 저항 운동을 변호하던 변호사 소투데(Nasrin Sotoudeh)의 구금에 이르는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변화와 변혁을 기대했던 로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과 특히 앞

<sup>10</sup> 2009년 07월 이란 50대 상류층 여성과의 인터뷰.

으로 살펴볼 경제 위기에 따른 불만으로 로하니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산층의 붕괴현상과 빈곤층의 증가로 2017년 말~2018년 이란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난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내 빈곤층들의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2017년 12월 27일에 시작된 민중봉기는 2009년 녹색운동 이후 최대 규모였지만 그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마샤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는 테헤란 대학가로 번졌고, 악화일로를 겪는 경제난에 따른 시위로 시작하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척점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시리아, 예멘에 돈을 쏟아붓는 정부에 대한 저항도 이어졌다(Jahanbegloo, 2018). ‘팔레스타인은 잊어라!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이란인 나의 삶을 위하여’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Aljazeera, 18/01/02).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며 이란 정권 자체를 전복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중도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정권이 이란 국내에서 신임을 잃고, 오히려 이란 내 보수파를 집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이란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는 내부의 시위, 지역 정세 등 복합적인 국내외 역학 관계로 안개 속이다(구기연, 2019). 이에 지금 이란 사회 내부는 내부적인 불만과 외부적인 외교적 고립 및 압력, 또한 개혁파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전통 보수파의 견제까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로써 안타깝지만, 이란은 녹색운동을 통한 사회 변화의 동력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상당 부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이란 사회의 자유와 구조적, 체제적인 변화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이란을 옥죄고, 이란의 숨통을 막음으로써 더욱 악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란 내 온건 목소리들이 사회를 전복시키지 못한 이유는 이란 체제 내부의 문제보다도,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상기시켜 볼 때(Shams, 2019), 오늘날 이란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지정학을 더욱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2) 심각한 경제난, 10년 후 다시 거리의 희생자로

정치적 이견보다도 평범한 이란 사람들조차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떠난다’라는 유행어처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은 점점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 또한 “이란 사회는 시장화되었고, 모든 것이 상품화되었다(Khosravi, 2017: 242).”라는 언설처럼 공공복지 부분에서 국가의 영역이 점차 사라지고, 시장이 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이란에도 여지없이 불었다. 코스라비(Khosravi, 2017)는 이것을 신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라 불렀다. 하지만 ‘저항 경제’와 같은 신자유주의 열풍에 맞서기에 어색한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진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2011년부터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와 같은 외세에 의한 경제제재에 대항하는 의미로 ‘저항 경제(economy of resistance)’라는 개념을 내세우기 시작했다(Khamenei 14/03/11). 저항 경제의 핵심은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이란의 경제를 지켜 내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의 다각화, 국내 생산력 강화, 석유 의존도 낮추기, 소비규범 개혁, 부패 척결 등이다(Khamenei 14/03/11).

2015년 이란은 극적으로 핵협상이 타결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유럽과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 정상들이 방문하는 등 지대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산 로하니가 2017년 재선을 준비하면서, 핵협상 타결과 경제제재 해제가 로하니 정권의 최대 성과로 홍보되면서(김수완, 2017), 로하니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연임에 성공하였다. 보수 강경파에 대한 견제와 내부권력 투쟁에서 개혁파들의 힘을 얻는 듯했다. 로하니의 새로운 외교 정책은 이란 경제로의 압력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특히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경제를 재건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Akbarzadeh & Conduit, 2016: 6).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란 정세와 경제는 급격한 혼란 속에 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방적인 JCPoA 파기로 또 다시 이란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2009년 이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젊은, 개혁파, 중산층 세력들이 “독재자에게 죽음을!”을 외쳤다면, 2018, 2019년 이란의 지방의 거리에는 트럭 운전수들이, 설탕 공장 근로자들이, 수해피해 지역민들이, 교사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구기연, 2019; Saffari, 2018). 다

시 말해 경제 취약층과 지방 거주민일수록 경제 양극화 현상과 위기에 취약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9년 이란의 거리에서 이들이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도시 젊은 계층들을 주축으로 자유와 민주화를 울부짖었다면, 2017~2019년 이란의 거리에서는 신자유주의 역풍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 소수종족들,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한편, 경제적 사황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JCPoA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 선언으로 환율 시장은 급격히 흔들렸다. 2018년 8월 기준 1년 사이 이란 리알(Rial)은 172% 가치 하락하였고, 환율은 1달러당 10만 리알가량 올랐다. 리알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였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9)에 따르면, 이란 물가는 2019년 37.173%, 2020년 31%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년만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9.641%였던 것에 비교하면 많은 이란 내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란은 실질 GDP가 2018년 -1.5%, 2019년 -3.6%로 감소 전망치를 보이고 있다. 이란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 경제제재 이후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에 코스라비(Khosravi, 2017)는 이란 전체가 이란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신자유주의 문화가 발견되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매일 일상적인 만남에서 이란 사람들은 매일 환율과 금값 상승률 등 변동하는 가격들, 투자, 리스크, 외화와 금화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 이야기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란 사회가 직면한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결과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다.

이 기간 중 1달러당 리알 기준 최저 2만 2,800리알에서, 최고 19만 리알까지 기록하면서 이란의 생활의 구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www.bonbast.com). “당장 다음 달 생활비와 지출비를 가늠할 수가 없다.”<sup>11</sup>라는 진술이 쏟아질 정도로 물가 인플레이션은 심한 정도이며,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률 및 물가상승으로 시중 환율이 급등해, 경제고통지수가 최근 10년 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의 인플레이션 통계는 특히 이란에 대한 제재 이후 이란 경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sup>11</sup> 2019년 7월 이란인 유학생과의 면담(테헤란 거주, 2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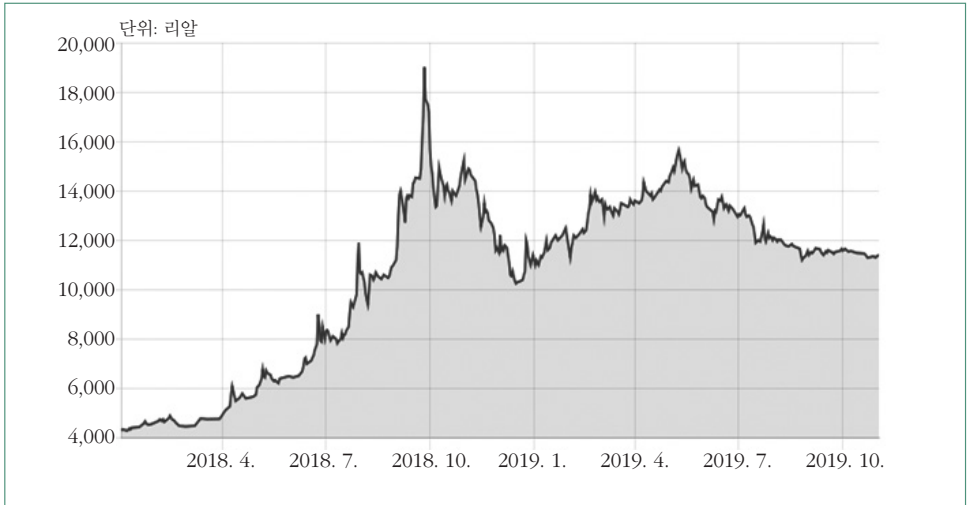


그림 1 이란 환율 변동(2018년 1월~2019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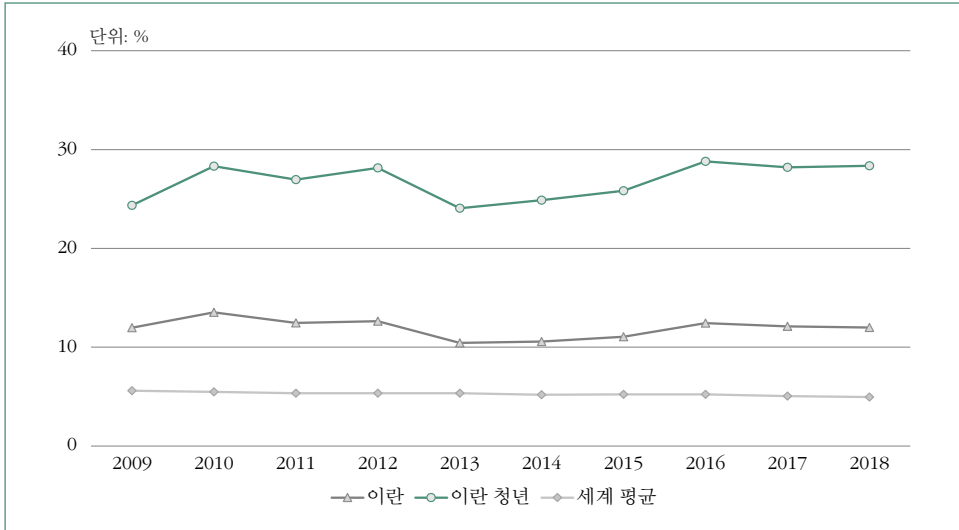


\*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2 이란 인플레이션(2009~2019년)

통해 먼담한 정보제공자들에 의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우유 가격, 생필품 가격이 급등할 정도로 이란 국민들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절실히 체감하였다.

본격적인 JCPoA 파기와 미국의 대이란 압박정책으로 2017년 고통지수 11위를 기록했던 이란이 2018년 3위(CATO Institute 19/03/28), 2019년에는 이란은 베네



\*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3 이란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2000~2018년)

수엘라, 짐바브웨,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4위(인플레이션+실업률 46%)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Focus Economics). 이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란 내 경제 상황 역시 2018년 겨울이 미국 제재의 영향으로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2배 정도 악화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The Arab Weekly 19/07/20).

특히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청년 실업률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 이란의 청년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의 2배가 될 정도로 30% 가까이 상회했다. 이는 이미 2000년대 들어 계속되어 온 현상이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직면하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이란 사회의 안전성을 흔들고 있었다. 2019년 5월 테헤란대학교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죽어 간다, 우리는 이런 모욕을 참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이번 시위는 라마단 기간 내 엄격해진 히잡 규정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대학생들은 실업문제와 언론자유를 외치며 캠퍼스 내 대규모 집회를 감행했다(Radio Farda 19/05/13). 2009년 녹색운동의 주역이었던 젊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10년이 지난 2019년에도 역시 실업과 자유의 문제는 현재 젊은 세대들이 당면한 과

제인 것이다. 특히 이란 내 고학력층 실업자들의 높은 비율은 이란의 유능한 미래 인재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현대 이란은 이슬람혁명 이래 최대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에 처해 있음에 틀림없다. “이념보다도 빵이 먼저다.”라는 이란 사람들의 푸념처럼 현재 경제적 위기는 곧 이란 정치 개혁파에 대한 위협이며 이슬람혁명의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시켰다. 외부적으로 이란은 지난 40년간 미국, 유럽, 유엔 등의 제재를 받아 왔다. 이란 내 사회 양극화 현상과 사회 불평등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전체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Radio Farda 18/04/10). 녹색운동의 정치적, 문화적 의미가 이란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 의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는 바로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혁명 이후의 최악의 유행사태로 번지고 있다.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이란의 휴일인 금요일 밤에 갑작스러운 가솔린 가격의 인상 소식이 들렸다. 50~200% 이상의 유가 인상 소식(BBC 뉴스 19/11/17)은 2017년부터 미국의 전 방위적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목까지 차 있던 사람들의 분노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에 수도인 테헤란뿐 아니라 지방 도시 가릴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가솔린은 더욱 비싸지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진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시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자신들의 차로 주요 도로들을 점령했다. 2017~2018년 4만 2천 명 시위 참가자보다 두 배 넘는 8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갑작스러운 유가 인상 소식에 분노한 시위 참여자들은 은행과 주요소에 불을 지르는 등 점차 시위 양상은 과열되었고, 이란 정부의 대응도 더욱 강경하였다(Fathollah-Nejad, 2019). 2019년 11월의 시위가 충격적인 것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적어도 200명 넘는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2019년 12월 3일자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에 의하면, 최소 20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대부분 이란 보안군의 총에 사살되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19).

2019년 11월 15일 유가 인상이 발표되고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이란 전역에 ‘인터넷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단시간에 국민들의 합성을 잠재우려고 무

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간의 암흑 기간 이후 밖으로 알려진 동영상 속 현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이란의 보안군들은 잔인하게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무장하지 않은, 특히 십 대 청소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특히 쿠르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케르만샤와 쉬라즈 지방에서는 특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많은 죽음이 사람들의 절규 속에서 목도되었다(Afary, 2019).

사람들을 더욱 절망감과 배신감에 떨게 하는 것은 2019년의 이란을 다시 암흑으로 만든 이들이 바로 10년 전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중도 개혁파 정부에 의한 강경 진압이라는 점이다. 자신들이 지지하였고, 녹색의 개혁 의지를 보라색 변혁의 의미로 연대한 로하니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강경하고 잔인한 탄압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에 빠지게 했다. 2009년 녹색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2019년 이란 전역의 거리와 광장에서의 외침과 젊은이들의 죽음은 이란 사회에 또 하나의 큰 생채기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 역시 10년 전 녹색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상처만을 남기지 않고, 앞으로의 이란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 2. 튀니지: 미완의 혁명

### 1) 느린 속도의 민주주의 공고화 이행

튀니지는 외부의 개입 없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Szmlka, 2015: 75). 군부 독재로 회귀한 이집트와 달리 튀니지는 경찰과 군이 독재자 벤 알리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시민의 편에 섰다. 벤 알리 축출 이후 과도정부 구성 및 헌법 개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느린 속도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특히 2011년에 논의를 시작해서 2014년에 통과된 새로운 헌법은 튀니지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첫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10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온건 이슬람 성향의 '엔나흐다당(Ennahda)'과 세속주의 성향의 '네다 튀니스(Neda Tunis)'를 포함한 정당들은 약 2년간의 오랜 조정과 타협 끝에 새로운 헌법을 도출했다. 남녀평등,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2014년 튀니지 헌법은 아랍국가 중 가장 진보한 헌법으로 평가됐다(Bouazza, 2014). 새로운 헌법

은 튀니지의 국교를 이슬람이라 명시했으나 타 아랍국가와 달리 샤리아(Shari'ah, 이슬람 율법)를 법의 근간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타 종교와 무신론을 포함한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 더하여 새로운 헌법에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권리 증진과 보호, 남녀평등의 제도화, 고문 금지,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도 명시됐다(이유주현, 2014).

혁명 이후 튀니지의 주목할 만한 정치적 변화는 정기적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총선에서는 온건이슬람정당인 엔나흐다가 승리했다. 이어 2014년 총·대선에서는 세속주의 정당인 네다 투니스가, 다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엔나흐다가 승리하며 혁명 이후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2018년 5월 지방선거는 2011년 혁명 이후 최초의 지방선거이자 튀니지 민주주의 발전 및 공고화를 평가하는 중요 척도로 평가됐다. 약 2,000명이 넘는 후보자 중 49%가 여성이었고 그중 절반은 기존 정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심진용, 2018). 특히 2019년 10월 총선에서는 기존 정당인 엔나흐다와 네다 투네스를 재치고 새롭게 등장한 ‘칼브 투네스(Qlab Tunes)’당이 선전하며 튀니지 제2당으로 등극했다. 튀니지 사회 내 다양한 정치 행위자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어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공고화로의 이행을 보여 주고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아랍의 봄 이후 이웃 아랍국가에 비해 튀니지는 상대적으로 민주화로의 이행이 진척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산정한 2017년 민주주의 척도에 따르면 튀니지는 167개국 중 민주주의 지수 6.3%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A Flawed Democracy)’로 평가됐다. 같은 아랍의 봄을 겪은 다른 아랍국가 대부분이 민주주의 지수 중 가장 하위단계의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 지수를 합산한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자유지수(World Freedom Index)에서 튀니지가 보다 자유로운 사회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2</sup> 혁명 전인 2010년까지 ‘부자유(Unfree)’로 분류되는 자유지수 6을 기록했던 튀니지는 2011년 이후 ‘부분 자유(Partly Free)’인 지수 3.5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에는 ‘자

<sup>12</sup> 2017 World Freedom Index에서 튀니지가 70위, 이란은 158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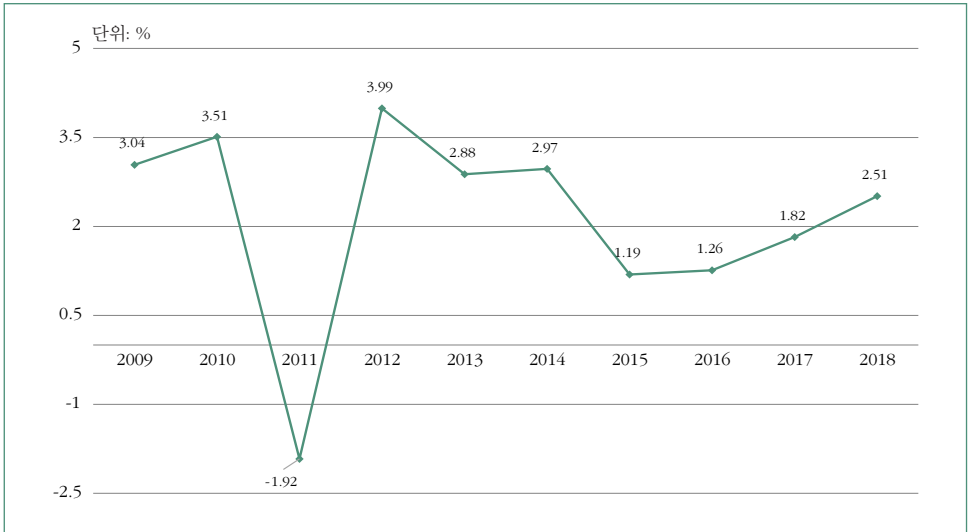
유(Free)’를 나타내는 지수 2를 기록하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부분에서 튀니지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여 주고 있다.

## 2) 더딘 경제발전과 높아진 실업률

독재자 축출에 성공한 이후 튀니지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튀니지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011년 이후 튀니지 디나르는 유로 대비 가치가 25% 하락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산한 튀니지의 GDP 성장률은 2010년 3.5%에서 2011년 -1.9%까지 하락했다. 2012년 4% 대로 반등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떨어져 2016년에는 1.26%까지 하락했다. 물가수준을 감안한 1인당 실질국민소득(GNI per Capita)을 보면 튀니지 국민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튀니지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4,130달러였으나 2011년 3,990달러로 하락했다. 이후 2012년 4,100달러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하락, 2018년에는 3,500달러를 기록했다. 국민의 실질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하락은 현재 튀니지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물가수준이 높음을 보여 준다.

결국 튀니지는 IMF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았다. 특히 2015년 세 차례의 테러공격과 이웃 국가인 리비아의 내전, 튀니지의 가장 큰 시장인 유럽의 경제침체는 혁명 이후 튀니지 경제침체에 일조했다(The Economist, 2015).<sup>13</sup> 외부적 불안요인에 더해 혁명 이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튀니지 국내 경제정책 또한 튀니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벤 알리 시절부터 만연했던 부패와 비효율적 행정 및 경제구조는 혁명 이후에도 지속됐다. 주요 사업권은 여전히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고, 신 사업권 입찰은 공정한 경쟁이

<sup>13</sup> 튀니지의 경제는 2015년 연속으로 세 번 발생한 테러로 타격을 맞았다. 2015년 3월 18일 수도 튀니스에 있는 바르도 국립박물관(Bardo National Museum)에서 일어난 테러로 22명이, 세 달 뒤인 6월 26일 휴양도시 수스(Sousse)에서 발생한 테러로 28명이, 11월 24일 대통령 호위대를 겨냥한 테러로 13명이 사망했다. 특히 테러 사망자에 다수의 유럽인 관광객이 포함되어 튀니지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CEIC의 자료에 따르면 튀니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2014년 약 710만 명에서 2015년 530만 명으로 급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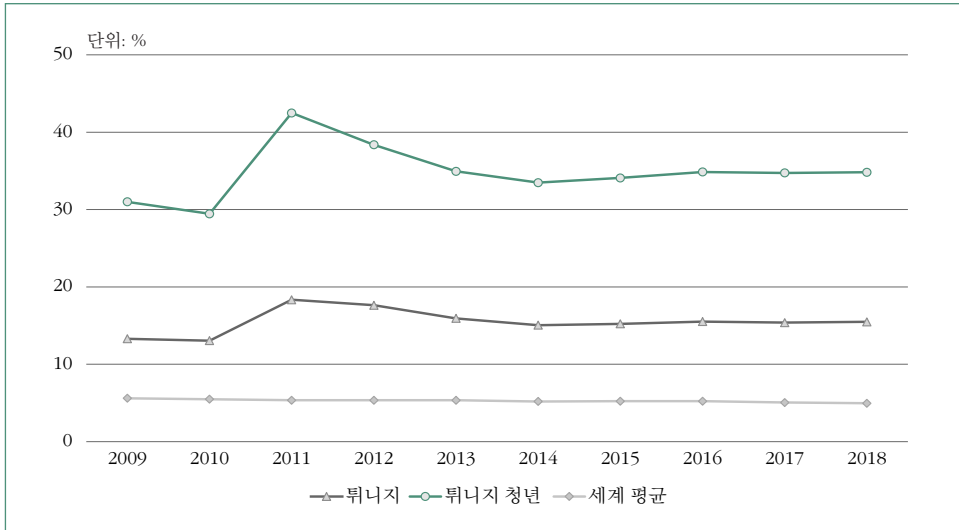
\*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4 튀니지 GDP 성장률(2009~2019년)

아닌 정부와의 정권유착의 정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Diwan, 2019: 3). 혁명 이후 선출된 문민정부는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튀니지의 경제를 개혁하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튀니지의 GDP 대 부채 비율이 혁명 전 2010년 40%에서 2019년 73%까지 증가했다(IMF, 2018). 정부 부채 증가로 향후 튀니지 사회에 인플레이션, 튀니지 디나르 가치 하락과 동시에 국민 생활수준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다. 혁명 전 평균 12% 내외를 보이던 튀니지의 실업률은 혁명 직후인 2011년 18.9%까지 상승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튀니지의 실업률은 세계 평균 5%보다 약 3~4배가 높다. 혁명 이후 7년이 지난 2017년까지 실업률은 15%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청년의 실업률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은 2011년 기준 무려 40%에 달한다. 18세에서 35세 사이 청년층은 튀니지 인구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매년 약 8,000명의 튀니지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탈리아로 입국하고 있다. 또한 경





\*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5 튀니지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2009~2018년)

제·사회권리를 위한 튀니지 포럼(FTDES: Forum Tunisien pour les Droits Economiques et Sociaux) 통계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튀니지인의 약 2/3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남성으로 밝혀졌다. 여성 실업률 또한 높다. 혁명 전인 2010년 18.9%였던 여성 실업률은 혁명 이후인 2011년 27.4%까지 상승했다. 2017년에도 22.8%를 기록하며 여전히 20%대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의 실업률도 악화됐다. 2010년 22.9%였던 튀니지 고학력자 실업률은 2013년 30.5%를 기록했다. 혁명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은 재스민혁명의 주요 동인이었던 실업률 문제를 더 악화시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기관인 국제공화주의연구소(The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에서 2017년 튀니지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튀니지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2015년 6월 응답자의 17%가 실업, 인플레이션, 낮은 임금을 포함한 경제문제라고 답했다. 2017년 같은 질문에는 약 2배가 증가한 42%의 응

답자가 경제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혁명 이후 ‘튀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대답한 이는 2012년 1월 62%에서 2017년 11월 13%대로 하락했다. 반면, ‘튀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대답한 이는 2012년 1월 30%에서 2017년 11월 83%까지 급상승했다. 혁명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비해 더딘 현실로 시민들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튀니지 경제 사정에 관한 질문에 ‘매우 나쁘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혁명 직후인 2011년 3월 기준 20%였으나 2017년 1월에는 68%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혁명 성공으로 정치적 기회와 변화의 기대감은 컸으나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그에 따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혁명 이후에도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와 실업률, 튀니지 시민들은 혁명 성공 이후 높아진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느낀 박탈감을 기성 정치인에 대한 회의와 비판으로 표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 10월 총선에서 선전한 신생정당인 ‘칼브 투네스당’이다. 혁명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없자 튀니지 시민들은 새로운 인물과 정당에 표를 던졌다. 칼브 투네스당의 창립자이자 언론계 거물인 나빌 카루이(Nabil Karoui)는 2017년 ‘칼릴 투네스’ 재단을 설립해 빈민을 지원하고 방송을 통한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튀니지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치른 대선 결선 투표에 오를 후보도 모두 기존 정치인이 아닌 정치 신인인 카루이와 법학 교수 출신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였다.

2019년 이란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비해 2019년 튀니지의 경제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2010년 혁명에서 외쳤던 고실업률과 만연한 사회부정의와 부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튀니지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튀니지는 2011년 독재자 벤 알리 축출 이후 세 번의 총선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경제·사회 문제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존 정치인의 대안으로 나온 나빌 카루이 또한 언론 플레이와 포퓰리즘적인 행동으로 인기를 얻었을 뿐 튀니지의 경제회생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혁명 성공으로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권리에 대한 기대가 정체된 경제·사회 문제로 인해 애써 이룬 민주주의 제도화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 나오고 있다(Diwan, 2019: 2).

프레운드(Freund et al., 2013)는 구소련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 전환 연구에서 혁명 이후 지속된 경제 약화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막고 혁명 전복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튀니지는 이웃국가인 이집트에서 재스민혁명과 같이 시민의 손으로 독재자 축출에 성공했던 혁명이 군부에 의해 쉽게 전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정부의 실업률, 경제난, 사회부정의 척결에 대한 무능함은 군부가 권위주의 정권으로 복귀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일시적인 정권 교체와 독재자 축출은 혁명의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혁명의 성공은 정치경제사회 안정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공고화 이행이다. 경제난이라는 올가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가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는 튀니지가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경제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V. 나가며

“나의 말은 자유롭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비밀이요 저항하는 목소리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빛나고,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의 말은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의 신념을 배신한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중략)

나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요

나는 압제자 목 안의 왕좌이다.

나는 불에 맞서는 바람이요

절대 잊히지 않은 영혼이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 목소리다.

2011년 1월 튀니지의 수도 튀지니 튀니스 부르기바 거리에 한 여성의 목소리

가 울려 퍼졌다. 광장 저편에서는 튀니지 사람들의 울분에 섞인 구호 소리가 들리고, 에멜 마스루디(Emel Mathlouthi)는 단호하게 ‘절대 죽지 않는 목소리’로 저항의 노래를 불렀다.<sup>14</sup> 이 노래는 2011~2012년으로 이어진 아랍 광장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중동은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 10년, 중동의 광장은 아직도 민중들의 함성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여전히 중동의 많은 민중이 자유와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고 있다.

1979년 이란이슬람혁명 이후 40년 넘게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란이슬람 공화국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란은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란 리알 가치 하락과 경제난으로 인해 전통적인 이슬람정부의 지지자 세력인 시장 상인들과 노동자 계층,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이란’을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심각한 실업률과 인권문제 등은 이란의 평화와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시리아는 잊어라! ‘우리’부터 생각해!”,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우릴 위해 희생하라!”는 새로운 정치구호들처럼 이란 시민들은 대외적으로 오해받는 것처럼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에 맞서 무슬림 형제들을 구하겠다’는 포부는 더 이상 없다. 더욱이 2019년 11월에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최악의 유혈사태를 부른 경제난에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앞으로 이란의 정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란의 작금의 사태는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사우디,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이란을 경계하며 저항의 대상으로 여기는 레바논, 이라크 각국의 봉기 사태와 맞물려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기에 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무력으로 시민들을 제압한다고 해서 결코 이슬람정권이 원하는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시위에서 보여진 이슬람정권의 잔혹한 탄압에 대한 반발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2020년 1월 3일에 발생한 미공군 폭격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슬레이마니의 죽음을 둘러싼 미국과의 일촉즉발의 사태는 이와 같은 이란의

<sup>14</sup> [https://www.youtube.com/watch?v=6a77s097Qvw&list=RD6a77s097Qvw&start\\_radio=1&t=0](https://www.youtube.com/watch?v=6a77s097Qvw&list=RD6a77s097Qvw&start_radio=1&t=0)

불안정한 사회적 정세를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2020년 새해 벽두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더욱더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선포했고, 이에 대한 이란의 미래는 일단위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튀니지혁명 역시 분명히 존엄성에 대한 외침이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 권위주의의 맹공격에 대한 반란이었다. 혁명의 관계적 측면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계급 간의 연대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도시 사회 운동이 등장했음을 보여 준다(Zemni, 2017: 80). 튀니지 역시 2019년 1월 공공근로자들의 총 파업이 시작되었고, 공공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연합뉴스 19/01/07). 튀니지 재스민혁명 성공의 최대 지지자들이었던 노조단체 ‘튀니지 노동연맹(UGTT)’의 공공근로자들은 2018년 후반부터 여러 차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튀니지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혁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시위의 촉발이 된 사회적 배경 중 하나인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경제 불황이 사회 안정화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2009년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은 2020년 오늘의 이란 시민들과 튀니지 노동자들에게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 이란 2009년 녹색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단결된 합성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인 것이다. 튀니지는 역시 혁명 이후 어려운 경제적 위기와 더딘 민주화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지만, 새로운 헌법 체계를 세우고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에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요소들은 아랍과 이란의 엘리트들,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정치적인 계급들에게 그들의 활동, 변화 그리고 좋은 사회라는 이미지에 대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이슬람주의자 혹은 그의 대척점에 있는 세속주의자들도 역시 자유시장과 신자유적인 합리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실업과 같은 정책적인 결과들에만 관심이 있어, 정작 재분배, 소유 관계에서의 변화와 착취, 민중 통제와 같은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에 인권, 여성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개인에 대한 권리와 같은 문제들은 현대 중동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 무시되어 왔다(Bayat, 2017: 25).

하지만 결국 중동세계는 결국 개인의 권리와 인권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인정 투쟁과 시민불복종과 마주할 것이다. 아랍의 봄 직후 지적이 예견했던 것처럼 (지적, 2012: 115), 중동의 빈곤은 권력자들의 탐욕과 부패의 결과이지만, 그들을 축출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다. 2019년 이라크와 레바논 그리고 이란의 광장에서, 10여 년 전의 네다와 부아지지의 유령이 여전히 배회하고 있다. 이는 분명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까지 쌓여 왔던 권리, 계급, 정치의 문제와 복잡하게 엮여 있다. 과연 중동의 봄은 언제쯤 올 것인가? 아마도 바야트(Bayat, 2017)가 지적한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이 억압적인 과거에서 해방된 오늘로 오기 위한 여정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끊임없는 투쟁과 지속적인 민중들의 개입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미 중동에서의 광장의 정치는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투고일: 2019년 12월 6일 | 심사일: 2019년 12월 27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월 29일

## 참고문헌

- 구기연. 2012. “현대 이란 사회에서의 자아와 녹색운동의 문화적 의미.” 『중동문제연구』 제11권 1호, 73-97.
- \_\_\_\_\_. 2017.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국가의 감정통제와 개인들의 자아 구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_\_\_\_\_. 2019. “이란 이슬람혁명 40주년, 혁명 이후 세대의 희망과 좌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오피니언』(2019년 7월 24일). [http://www.emerics.org/www/issue.do?systemcode=05&action=detail&brdctsno=267417&search\\_regioncode1=01&search\\_regioncode2=10&search\\_regioncode3=00&search\\_area=undefined](http://www.emerics.org/www/issue.do?systemcode=05&action=detail&brdctsno=267417&search_regioncode1=01&search_regioncode2=10&search_regioncode3=00&search_area=undefined).
- 김강석. 2016. “내부 정체성 갈등과 외부 개입의 정치: 중동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적 불안정성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KWP)』 32권 1호, 1-23.
- 김수완. 2017. “이란 대통령 선거와 향후 전망.” 『EMERICs 이슈분석』 2017-75.

- 김재웅. 2019. “미국, 이란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정권 돈줄까지 쫓는다.” 『경향신문』 (2019년 4월 9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092153015#csidx57530bddb55698e81e4528aac65c6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092153015#csidx57530bddb55698e81e4528aac65c69).
- 김효정. 2011. “혁명의 시작점, 튀니지의 미래.” 박현도 외. 『아랍 민주주의, 어디로가나』. 모시는 사람들.
- 노재현. 2019. “‘아랍의 봄’ 발원지 튀니지서 총선. 정치이변 이어질까.” 연합뉴스(2019년 10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604800007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 박인권·이선영. 2012.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공간과 사회』 22권 4호, 5-50.
- 박찬기. 2014. “튀니지와 이집트 ‘아랍의 봄’ 비교연구.” 『국제정치연구』 17권 2호, 27-51.
- 심진용. 2018. “아랍의 봄 7년…튀니지 여성 정치인권 새바람.” 경향신문(2018년 7월 1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162149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16214901).
- 엄한진. 2011. “북아프리카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 사회』 90호, 133-165.
- \_\_\_\_\_. 2012. “아랍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위상: 역사적 고찰.” 『기억과 전망』, 250-292.
- 유달승. 2012. “이란의 민주주의 연구.” 『중동문제연구』 11권 2호, 1-18.
- \_\_\_\_\_. 2018a. “이란 정치체제와 권력투쟁: 이란 정치 지형의 향방은?”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웹진 『다양성+아시아』 1(3) <http://diverseasia.snu.ac.kr/?p=1469>.
- \_\_\_\_\_. 2018b. 『시아파의 부활과 중동정치의 지각변동』. 한울아카데미.
- 이유주현. 2014. “튀니지, ‘아랍의 봄’ 3년 만에 이슬람식 민주헌법 개정.” 한겨레 (2014년 1월 27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ka/621664.html#csidxa511cd070fd9f9cb5195ce3b22b1309>.
- 이향우. 2011. “튀니지, 이집트의 시민혁명과 소셜미디어.” 『시민과 세계』 19, 151-165.
- 지젝, 슬라보예(Žižek, Slavoj) 저. 주성우 역. 2012. 『멈춰라 생각하라: 지금 여기, 내용 없는 민주주의 실패한 자본주의』. 와이즈베리.
- Akbarzadeh, Shahram and Dara Conduit, eds. 2016. *Iran in the World: President Rouhani's Foreign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Alavi, Nasrin, 2010. “This Magic Green Bracelet.” Nader Hashemi and Danny Postel, eds. *The People Reloaded: The Green Movement and the Struggle for Iran's Future*. New York: Melville House. 209-215.



- Amara, Tarek. 2018. "Tunisia Sees Record Tourist Numbers in 2018 as Attack Effect Fades." *Reuters* (2018. 2. 21). <https://www.reuters.com/article/tunisia-economy-tourism/tunisia-sees-record-tourist-numbers-in-2018-as-attack-effect-fades-idUSL8N1QB1TX>.
- Ansari, Ali M. 2010. *Crisis of Authority: Iran's 2009 Presidential Election*. London: Chatham House.
- Axworthy, Michael. 2013. *Revolutionary Iran: A History of the Islamic Republic*.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yat, Asef. 2017. *Revolution without Revolutionaries: Making Sense of the Arab Spr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doui, M. and R. Gouia. 1995. "Patterns and Processes of Social Exclusion in Tunisia." In Rodges, Gore, and Figueiredo, ed.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 Beinin, Joel. 2016.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s on the Tunisian and Egyptian Popular Uprisings of 2011." *LSE Middle East Center Paper Series*. <http://eprints.lse.ac.uk/64909/>.
- Ben Bouazza, Bouazza. 2014. "Tunisia Finally Passes Progressive Constitution." *AP News* (2014. 1. 27). <https://apnews.com/8019db88d91d402a9723cdcd064e5bd8>.
- Black, Iran. 2010. "WikiLeaks Cables: Tunisia Blocks site Reporting 'Hatred' of First Lady." *The Guardian* (2010. 12. 2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0/dec/07/wikileaks-tunisia-first-lady>.
- Briton, Crane. 1965. *The Anatomy of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 Chabot, Sean, and Majid Sharifi. 2013. "The Violence of Nonviolence: Problematizing Nonviolent Resistance in Iran and Egypt." *Societies Without Borders* 8(2), 205-232.
- Chaichian, Mohammad. 2011. "The New Phase of Globalization and Brain Drai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9(1/2), 18-38.
- Dabashi, Hamid. 2010. "A Movement Centuries in the Making." In Nader Hashemi and Danny Postel, eds. *The People Reloaded: The Green Movement and the Struggle for Iran's Future*. New York: Melville House.
- Diwan, Ishac, 2019. "Tunisia's Upcoming Challenges: Fixing the Economy before It's

- Too Late.” *Arab Reform Initiative* (2019. 9. 23) <https://www.arab-reform.net/publication/tunisiyas-upcoming-challenge-fixing-the-economy-before-its-too-late/>.
- Ehsani, Kaveh, Arang Keshavarzian, and Norma Claire Moruzzi. 2010. “Slaps in the Face of Reason: Teheran, June 2009.” *The People Reloaded: The Green Movement and the Struggle for Iran’s future*. New York: Melville House.
- Elass, Jareer. “Indexes Reveal Iran has One of the Most ‘Miserable’ Economies in the World.” *The Arab Weekly* (2019. 7. 20) <https://thearabweekly.com/indexes-reveal-iran-has-one-most-miserable-economies-world>.
- England, Andrew. 2019. “Arab Youth Vent Their Anger at Broken Economic Promises.” *Financial Times* (2019. 10. 22). <https://www.ft.com/content/4ee827cc-f3f5-11e9-a79c-bc9acae3b654>.
- Fischer, Michael. 2010. “The Rhythmic Beat of the Revolution in Iran.” *Cultural Anthropology* 25(3), 497-543.
- Freund, Caroline and Melise Jaud. 2013. “On the Determinants of Democratic Transitions.” *Middle East Development Journal* 5(1), 1-30.
- Gurr, Ted Robert. 1970. *Why Men Rebel*. Prinstone: Prinstone University Press.
- Haidar, Jamal Ibrahim. 2017. “Sanctions and Export Deflection: Evidence from Iran.” *Economic Policy* 32(90), 319-355.
- Hanke, Steve H. 2019. “Hanke’s Annual Misery Index 2018: The World’s Saddest (and Happiest) Countries.” *CATO Institute* (2019. 3. 28).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hankes-annual-misery-index-2018-worlds-saddest-happiest-countries>.
- Harvey, David. 2007.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Hashemi, Nader and Postel, Dannyed. 2010. *The People Reloaded: The Green Movement and the Struggle for Iran’s Future*. New York: MelvilleHouse.
- Hatem, Mervat F. 2012. “The Arab Spring Meets the Occupy Wall Street Movement: Examples of Changing Definitions of Citizenship in a Global World.” *Journal of Civil Society* 8(4), 401-415.
- Hurst, Steven. 2016. “The Iranian Nuclear Negotiations as a Two-Level Game: The Importance of Domestic Politics.” *Diplomacy & Statecraft* 27(3), 545-567.
- Jahanbegloo, Ramin. 2011. “Iran and the Democratic Struggle in the Middle East.”

- Middle East Law and Governance* 3(1-2), 126-135.
- \_\_\_\_\_. 2018. "Revolution is Not Here: The Democratic Future of Iran is Still Not in the Hands of Those Who Suffer for it on the Streets." *The Indian Express* (2018. 12. 4) <https://indianexpress.com/article/opinion/columns/iran-protests-hassan-rouhani-tehran-donald-trump-revolution-is-not-here-5009164/>.
- Joya, Angela. 2017. "Neoliberalism, the State and Economic Policy Outcomes in the Post-Arab Uprisings: The Case of Egypt." *Mediterranean Politics* 22(3), 339-361.
- Kadoub, Fadhel. 2012. "From Neoliberalism to Social Justice: The Feasibility of Full Employment in Tunisia."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4(3), 1-8.
- \_\_\_\_\_. 2013. "The End of Neoliberalism?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Arab Uprisings." *Journal of Economic Issues* 24(2), 533-534.
- King, Stephen J. 2003. *Liberalization against Democracy: The Local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Tunis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Khosravi, Shahram. 2017. *Precarious Lives: Waiting and Hope in Iran*.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aha Yahya. 2019. "The Middle East's Lost Decades Development, Dissent, and the Future of the Arab World." *Foreign Affairs*, Nov-Dec (2019. 10. 1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middle-east/2019-10-15/middle-east-lost-decades>.
- Mahdavi, Pardis. 2013. "Iran's Green Movement in Context." Annabelle Sreberny and Massoumeh Torfeh, eds. In *Cultural Revolution in Iran: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in the Islamic Republic*. London: IB Tauris.
- Murphy, E. C. 1999.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Tunisia: From Bourguiba to Ben Ali*. London: Macmillan Press.
- Pfeifer, Karen. 1999. "How Tunisia, Morocco, Jordan and Egypt became IMF "Success Stories" in the 1990s." *Middle East Report* 210, October, 23-27.
- Rodrik, Dani. 1997. *Has Globalisation Gone Too Far?*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affari, Siavash. 2018. "Iran Protests: Changing Dynamics between the Islam Republic and the Po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Webmagazine, DiverseAsia* 1(1). <http://diverseasia.snu.ac.kr/?p=324>.

- Saffari, Siavash. 2019. "Iranian Revolution, Religion, and Social Justice: The Ambivalent Relationship between Islamists and the Poor."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혁명의 세계사를 향하여) 발표문, 한국학중앙연구원.
- Salehi-Isfahani, Djavad. 2009. "Poverty, Inequality, and Populist Politics in Iran."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7(1), 5-28.
- Shams, Shami. 2010. "Iran's Green Movement: Why US Policies Strengthen the Regime." <https://www.dw.com/en/irans-green-movement-why-us-policies-strengthen-the-regime/a-49189323>.
- Shane, Scott. 2011. "Cables From American Diplomats Portray U. S. Ambivalence on Tunisia." *The New York Times* (2011. 1. 15) <https://www.nytimes.com/2011/01/16/world/africa/16cables.html>.
- Skoci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zmloka, Inmaculada. 2015. "Exclusionary and Non-Consensual Transitions Versus Inclusive and Consensual Democratizations: The Vases of Egypt and Tunisia." *Arab Studies Quarterly* 37(1), 73-95.
- Tahmasebi-Birgani, Victoria. 2010. "Green Women of Iran: The Role of the Women's Movement During and After Iran's Presidential Election of 2009." *Constellations* 17(1), 78-86.
- The Economist*. 2015. "The Other Victim: Terrorism Will Slow Growth, but Tunisia's Economy has Deeper Problems." (2015. 7. 2).
- Tilly, Charles.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 Zemni, Sami. 2017. "The Tunisian Revolution: Neoliberalism, Urban Contentious Politics and the Right to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1(1), 70-82.

〈인터넷 자료〉

- Afary, Freida. 2019 "Middle East: Iran Nationwide Popular Protests Call for Overthrow of Demagogic Regime". Alliance of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Socialists. <https://www.allianceofmesocialists.org/iran-nationwide-popular-protests-call-for-overthrow-of-demagogic-regime/>

- Al Jazeera. 2016. "The Death of Fear." <https://www.aljazeera.com/programmes/rage-homaarreport/2011/03/20113993920597144.html>(검색일: 2019. 11. 16).
- \_\_\_\_\_. 2018.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Protests in Iran." <https://www.aljazeera.com/news/2017/12/protests-iran-171231083620343.html>(검색일: 2019. 11. 2).
- Amnesty International. 2019. "Iran: Death Toll from Bloody Crackdown on Protests Rises to 208."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9/12/iran-death-toll-from-bloody-crackdown-on-protests-rises-to-208/>(검색일: 2019. 12. 3).
- BBC 뉴스. 2009. "ایران فارسی - امدامه اعلام نتایج انتخابات -".(검색일: 2019. 8. 17).
- BBC. "Iran Petrol Price Hike: Protesters Warned that Security Forces may Intervene."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0444429>(검색일: 2019. 12. 1).
- CIA Fact Book. 2019(검색일: 2019. 11. 25).
- EIU. 2018.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9/DemocracyIndex/>(검색일: 2019. 11. 25).
- Fathollah-Nejad, Ali. 2019. "Why Iranians Are Revolting Again." Brookings: ORDER FROM CHAOS (2019. 11. 19).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11/19/why-iranians-are-revolting-again/>(검색일: 2019. 11. 29).
- Focus Economics. "Which Will Be the Most Miserable Economies in 2019?" <https://www.focus-economics.com/blog/most-miserable-economies-2019-misery-index/>(검색일: 2019. 12. 5).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 2019(검색일: 2019. 11. 31).
- Kamenei. 2014. "Leader's Speech on the Economy of Resistance in Meeting with Officials and Business Communit." <http://english.khamenei.ir/news/1882/Leader-s-Speech-on-the-Economy-of-Resistance-in-Meeting-with>(검색일: 2019. 8. 20).
- NPR. "Iran's President Hassan Rouhani Wins Re-Election." <https://www.npr.org/2017/05/20/529257358/president-hassan-rouhani-wins-re-election-in-iran>(검색일: 2019. 7. 20).
- Radio Farda. "26 Million Iranians Suffer Absolute Poverty, Says Prominent Economist." <https://en.radiofarda.com/a/iran-million-suffer-from-poverty/29156808.html>(검색일: 2019. 8. 10).
- \_\_\_\_\_. "Vigilantes Attack Tehran University Students Protesting Strict Hijab."

<https://en.radiofarda.com/a/vigilantes-attack-tehran-university-students-protesting-strict-hijab/29938079.html>(검색일: 2019. 8. 10).

*The Guardian*. "Iran election protests: the dead, jailed and missing." <https://www.theguardian.com/world/blog/2009/jul/29/iran-election-protest-dead-missing>(검색일: 2011. 1. 15).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9/iran>(검색일: 2019. 11. 3).

Tunisian Forum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TFDES)(검색일: 2019. 11. 3).

World Freedom Index, Freedom House(검색일: 2019. 11. 3).

[www.bonbast.com](http://www.bonbast.com)(2012년 11월 1일에서 2019년 10월 28일까지 검색 결과)(검색일: 2019. 11. 3).

## Abstract

## Unfinished Revolutions and Precarious Lives: Ten Years after the Iranian Green Movement and the Tunisian Revolution

Gi Yeon K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hrum Y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wo mass civil movements shaped Iran and Tunisia ten years ago. In Iran, the political movement arose against a fraudulent presidential election in 2009. In Tunisia, Ben Ali's authoritarian regime collapsed by a mass civil demonstration with the resentment on high unemployment, corruption, and the lack of political freedom. According to Bayat, unlike the conventional revolution, those two civil movements occurred spontaneously without a certain ideology or ideologu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failure of neo-liberalism policy in the 1980s led to the mass civil disobedience to the status quo ante in Iran and Tunisia. There was the high expectation from the people that neo-liberalism would enhance the level of political freedom and the economy. The elite cartel, however, monopolized the benefit of neo-liberalism policy and the authoritarian regimes strengthened the violent political apparatus rather than opening the political freedom. There has been the rising of economic polarization, the unemployment rate and deteriorating social injustice with perpetual corruption in Iranian and Tunisian society. Drawing 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high expectation on change and the harsh reality, the relative depression drove the mass political unrest. Those civil movements and their aftermath are significant markers for where Iran and Tunisia stand toda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raws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ose movements and



their aftermath in the context of neo-liberalism.

**Keywords |** Iran, Tunisia, Green Movement, Tunisian Revolution, Neo-Liberalism